



## Day 2

### \*일정표\*

09:00~11:00  
주제탐구활동 (형설관 3,4층)

11:30~12:30  
점심식사 (식당)

13:00~16:00  
주제탐구활동 (형설관 3,4층)

16:00~18:00  
학교 소개 및 투어 (중강당 등)

18:00~19:30  
저녁식사 (식당)

20:00~22:00  
친교활동-대항전 (체육관)

22:00  
취침 (생활관)

## 2016 KSASF 개막

어제(8월8일) 2016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축전(KSASF 2016, 이하 KSASF)의 막이 올랐다. 이번 KSASF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환경과 에너지'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본교의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재작년보다는 축소된 참가자 150여명에 도우미 70여명의 규모로 개최되었다.

3박 4일간 연구프로젝트 발표, 주제탐구 활동, 과학에세이 등의 프로그램과 초청 강연 및 KSA 재학 생과의 친교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첫날에는 참가자 등록 후 개막식, 초청강연, 연구프로젝트 구두발표, 과학에세이, 환영의 밤 등의 일정이 이루어졌다. 개막식 후 이루어진 초청 강연에서는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한종인 교수가 강연해 주셨다. 그리고 개막식에서는 사물놀이부 어우러짐이, 환영의 밤에서는 밴드부 스타전, 힙합부 그루브, 댄스부 별보라가 공연을 펼쳐 그 열기를 더하였다.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는 KSASF는, 전국의 과학영재들이 서로 함께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과학적 창의성을 발휘하는 축제의 장이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축전인 만큼 참가자들이 준비한 것을 모두 드러내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 오늘의 급식

점심 (11:30~12:30)	저녁 (18:00~19:30)
7색보리밥 메밀소바&장국 수제등심돈까스&소스 새우키다리춘권 갈비만두찜 깍두기 (음료슬러시/포도)	모짜렐라 치즈불고기버거 치킨너겟&머스타드 즐리엔컷&스마일포테이토 수제쿠키3종 (음료슬러시/자두)

KSASF 2016 Newsletter Team  
16곽재원 16김세민  
2016.08.09 (Day 2)





## 사진으로보는 KSASF



1, 2, 4 연구프로젝트/3, 6 체육대회  
5 과학에세이/7, 8 클럽공연

# 인터뷰!



Q. 올해는 재작년(KSASF 2014)에 비해서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A. 재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가 축소되어 원하는 활동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원하는 것들을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Q. 위원장을 맡게 된 동기나 계기는 무엇입니까?  
A. 1, 2학년 둘 다 KSASF 도우미를 했는데, 1학년은 일반 도우미를, 2학년은 사회자를 했습니다. 행사를 총괄하면 재밌을 거란 생각을 했었고, 2년 동안 하면서 바꾸고 싶은 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Q. 3년 동안 도우미를 맡으면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KSASF 도우미를 하면서, 책임감 같은 것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1학년 때는 작게만 느껴졌는데,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A. KSASF라는 행사가 우리 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초, 중학생을 위해서 개최한 행사인데, 학생들이 우리가 준비한 것을 경험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SASF 학생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성

Q. 발표한다고 수고 많았어요. 어떤 주제로 연구를 했는지 소개해주세요.  
A. '고층 아파트 폐수 재활용 발전 탐구' 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어요.



왼쪽부터 이현채, 이현서, 박준수

Q. 연구프로젝트 발표는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A. 발표는 만족스러웠고, 교실 시설 같은 것도 괜찮았어요.

Q.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아크릴로 모형을 제작하였는데, 그 모형을 만드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떨어트려 전기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양이 충분하지 않아 어떻게 올릴지 고민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Q. KSASF에 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처음에는 부모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해서 오게 되었어요.

Q. 개막식과 초청 강연은 어땠나요?  
A. 어우러짐 공연은 괜찮았어요.